

##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Peer Rejection and Acceptance of Bullies and Victims:  
Differences in Gender and Types of Aggression

이 은 주\*  
Lee, Eun Ju

### ABSTRACT

With 338 fifth-grade students as subjects, this study examined variations in the relation between school bullying and rejection or acceptance by peers as a function of gender and types of ag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a boy bullied other children, the more likely he was to be rejected by peers. The more a girl bullied other children, the more likely she was to be accepted by peers. Girls' aggressive behaviors also contributed to their acceptance by peers. When levels of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were kept constant, verbal aggress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peer rejection for boys but negatively related for girls. The use of relational aggression contributed to peer rejection only for girls. The findings provide preliminary bases for understanding bullying. Implications of the gender differences are discussed.

### Key Words

집단괴롭힘(bullying), 또래관계(peer relations), 공격성(aggression)

### I. 서론

또래관계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기에 부정적인 사회화와 또래에게 거부되는 경험은 비행이나 학교자퇴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고독감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연결되곤 한다(Parker & Asher, 1987; Perry, Kusel, & Perry, 1988). 이러한 아동기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공격성(aggression)을 지적할 수 있

\*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다. 실제로 아동들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Bukowski, Gause, Hoza, & Newcomb, 1993; Coie, Dodge, & Coppotelli, 1982).

많은 선행연구들이 공격성의 유형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을 들고 있다. 신체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이란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며,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이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심하게 놀리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공격성의 개념에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구인으로서, 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를 가함으로써 그들의 또래관계에 해를 입히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겁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또래 집단에서 제외시키거나, 다른 친구들이 그를 거부하도록 헛소문을 내는 행동 등으로 표출된다. 관계적 공격성은 연구자들에 따라 사회적 공격성(social aggression), 또는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집단 괴롭힘(bullying)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Olweus, 1984). 집단 괴롭힘의 유형은 크게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괴롭힘이란 피해대상에게 대해 폭행이나 구타, 심한 욕을 하거나 놀리는 등 보다 외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하며, 간접적 괴롭힘이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소외, 내적인 배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Olweus, 1993).

이러한 집단 괴롭힘의 유형은 공격성의 하위 유형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즉 공격성과 집단 괴롭힘을 연관지어 볼 때, 직접적 괴롭힘은 신체

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간접적 괴롭힘은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격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집단 괴롭힘을 공격성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Palasahti & Keltikangas-Jarvinen, 1998).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집단 괴롭힘이 또래들에 대한 공격성의 표출이며,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은 또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격적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집단 괴롭힘이 공격적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단 괴롭힘의 가해아동과 공격적 아동이 동일한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tton et al., 1999). 집단 괴롭힘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집단 괴롭힘은 공격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공격성은 또래들에게 거부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들 역시 그들의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거부되고 있을까?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을 통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또래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뿐, 아직까지 집단 괴롭힘과 또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또래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또래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집단 괴롭힘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주

장했다(양원경·도현심, 1999; Boulton & Underwood, 1992; Perry et al., 1990).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집단 괴롭힘의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직접적인 괴롭힘(신체적·언어적 괴롭힘) 형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금까지 행해진 국내연구는 대부분 직접적인 괴롭힘만을 또래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집단 괴롭힘에 있어서 성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 된다. 집단 괴롭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집단 괴롭힘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외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유형별로 분석한 이점숙과 유안진(1999)의 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인 괴롭힘은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나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남아와 여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또래의 직접적인 괴롭힘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Olweus(1994)의 연구에서도 집단 괴롭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괴롭힘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폭력과 같은 직접적 괴롭힘은 남학생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 괴롭힘(예; 사회적인 고립이나 거부, 소문 퍼트리기)은 남·여간에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 괴롭힘의 유형별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격성 표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개인이 흔히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Salmivalli et al., 200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신체적 및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집단 괴롭힘을 가하며, 여학

생은 주로 관계적 공격적 행동을 통해 집단 괴롭힘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또래들로부터 얼마나 수용 혹은 거부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두 번째 관심은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은 또래들로부터 얼마나 수용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거부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은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가장 강력한 행동적 예언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Bukowski, Gause, Hoza, & Newcomb, 1993; Coie, Dodge, & Kupersmidt, 1990). 물론 집단 괴롭힘과 공격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집단 괴롭힘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단 괴롭힘이 또래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격적 행동(peer-directed aggression)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이 또래들에게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의 또래관계를 조사한 일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모든 가해 학생이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부의 가해학생은 그들의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Price와 Dodge(1989)의 연구에서 집단 괴롭힘과 또래 거부간에 단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상관 분석을 통해 다른 유형의 공격적 행동이 통제된 후에는 집단 괴롭힘은 또래 수용과 오히려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비슷하게, Lindman과 Sinclair(1988)는 가해 여학생이 특히 또래들 간에 놀라울 정도로 인기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Salmivalli 등

(1996)의 연구에서는 가해 여학생은 또래 거부와 또래 수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과는 반대로, 피해 학생은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Perry et al., 1988).

그런데 가해 학생이 그들의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또래들에게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해 학생을 수용하는 또래들은 아마도 이들의 가해 행동을 강화하는 집단이거나 집단 괴롭힘을 부추기는 학생들일 것이다(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의 대상이 된 또래들로부터는 거부당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가해 학생들은 아마도 일부 또래들에게는 상당히 수용되면서도 다른 일부의 또래들로부터는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Coie와 Dodge(1988)은 또래 관계의 유형을 인기형(popular), 거부형(rejected), 평균(average), 무시형(neglected), 양면형(controversial)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양면형의 또래관계란 또래의 거부도 심하고 인기도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Coie와 Dodge(198)의 분류 체계를 적용한다면 가해학생들은 양면형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또래관계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가해학생은 양면형의 관계를, 피해학생은 거부형의 또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3. 집단 괴롭힘의 행동유형에 따라 가해학생들의 또래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셋째 목적은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은 그 유형(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따라 이들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을까? 또한 남학생이 표출하는 신체적 공격성(혹은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과 여학생의 그것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을까?

Salmivalli 등(2000)은 핀란드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하위 유형들과 또래 관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은 여학생의 또래 거부와 가장 분명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공격적일수록 이들은 보다 많이 또래들에게 거부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언어적 공격성에서는 여학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나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는 신체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lmivalli 등(2000)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 간접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와 관계가 없거나 부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은 오히려 또래 수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Rys와 Bear(1997)의 연구는 Salmivalli 등(2000)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Rys와 Bear(1997)의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도 또래 거부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표현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는 또래 거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Crick과 Grotpeter(1995)의 연구는 Rys와 Bear(1997)의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또래 관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해서 자신이 또래들에게 별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래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을 성별에 따라 분리해서 살펴본 결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여아는 그렇지 않은 여아에 비해 또래 수용이 낮고 고립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또래 수용이나 고립감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학생은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많이 표출할수록,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할수록 부정적 또래 관계(높은 또래거부, 낮은 또래수용)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범위는 전국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타당하지만, 연구의 제한 때문에 강원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표집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일반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2월 중순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초등학교 2개교에서 10개 학급이 표집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총 338명으로, 164명의 남학생과 174명의 여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급단위로 조사해야 그 학급에서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급단위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 내용은 학급내 집단 괴롭힘 및 공격성에 대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학급내 친구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만약 학생들의 질문지 문항에 대한 반응이 또래들에게 노출된다면 또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질문내용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mivalli 등(2000)이 사용한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세 명의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alpha=.87$ )은 (1)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위협하는 친구; (2)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망가트리는 친구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공격성( $\alpha=.76$ )은 (1)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심하게 놀리기를 가장 많이 하는 친구; (2) 다른 친구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을 하는 친구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적 공격성( $\alpha=.83$ )은 (1)헛소문으로 친구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게 하는 친구; (2)다른 친구를 고의로 끼어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친구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같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산출했다. 학급에 따라 편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급별로 각 항목별 지명 빈도를 표준점수화 하였다.

### 2) 집단 괴롭힘

집단 괴롭힘의 가해 정도와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 아동의 편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측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증가시킬 있는 장점이 있는 또래보고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는 학생과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각각 세 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개인별로 같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산출하였다. 학급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학급내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수용과 또래 거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ie와 Dodge (1983)가 사용한 긍정적·부정적 또래 지명 절차를 사용했다. 먼저 또래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와 같이 놀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또래 거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상황에서 함께 하기 싫은 친구도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개인별로 같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산출했다. 학급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또래 수용 및 또래거부에 해당하는 지명 빈도를 학급내 표준점수로 변환하였다. 자료 분석에서는 표준점수가 또래수용 및 또래거부 점수로 활용되었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집단 괴롭힘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집단 괴롭힘과 공격성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즉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는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적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신체적 공격성을 나타냈다( $t=4.61, p<.001$ ). 반면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99, p<.05$ ). 언어적 공격성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표 1>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와 공격성의 성별 비교 :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괴롭힘		공격성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남 (N=164)	-.09(0.71)	-.04(0.94)	.25(1.19)	.04(0.90)	-.11(0.70)
여 (N=174)	.09(1.18)	.04(1.02)	-.23(0.65)	-.04(1.06)	.10(1.18)
t-value	-1.72	-.69	4.61***	.79	-1.99*

\*\*\*  $p < .001$ , \*\*  $p < .01$ , \*  $p < .05$

## 2.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또래들로부터 얼마나 수용 혹은 거부되고 있는가?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는 또래 거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r=.16, p<.01$ ), 또래 수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괴롭힘의 피해 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는 또래 거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48, p<.001$ )을, 또래 수용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27, p<.001$ )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집단 괴롭힘의 피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와 또래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없었지만,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

으로 지명된 정도와 또래 관계의 관련성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는 또래 거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또래 수용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즉 집단 괴롭힘을 많이 주도하는 학생일수록 친구들은 이 학생을 거부하며, 수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를 보면, 가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는 또래 거부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오히려 놀랍게도 또래 수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15, p<.05$ )을 보여 주었다. 즉 여학생들은 집단 괴롭힘을 많이 할수록 또래들에게 거부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와 또래거부 및 또래수용의 상관관계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집단괴롭힘 피해학생	
	또래수용	또래거부	또래수용	또래거부
남 (n=164)	-.16*	.23**	-.28***	.44***
여 (n=174)	.15*	.14	-.25***	.51***
합 (n=338)	.04	.16**	-.27***	.48***

\*  $p < .05$ , \*\*  $p < .01$ , \*\*\*  $p < .001$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집단 괴롭힘의 피해학생들은 매우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해학생들 특히 가해 여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래 수용과 또래 거부는 매우 높은 상관(본 연구의 경우,  $r=-.46, p<.001$ )이 있기는 하지만, 또래 수용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또래 거부가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또래관계의 유형에 따라 집단 괴롭힘 및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먼저 또래관계의 유형 (인기형, 거부형, 소외형 및 양면형)별로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해 개인의 또래 수용과 또래 거부의 표준점수 鬮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높음, 그 이하이면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인기형( $n=102$ )에는 또래 수용이 높고 또래 거부는 낮은 학생들, 거부형( $n=94$ )은 또래수용은 낮고 또래 거부는 높은 학생들, 소외형( $n=106$ )은 또래 수용과 또래 거부가 모두 낮은 학생들, 그리고 양면형( $n=36$ )은 또래 수용과 거부가 모두 높은 학생들로 구분되었다.

집단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행동에 대해 일

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관계의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으로 지명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F(3,334) = 10.47, p < .001$ ;  $F(3,334) = 12.81, p < .001$ .

Duncan test에 의한 사후 검증을 한 결과, 양면형의 학생들이 다른 어느 집단의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가해 학생으로 지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형, 인기형, 소외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피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를 보면, 거부형의 학생들이 다른 어느 집단의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외형, 양면형, 인기형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으로 지명되었으나, 이들 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 참조).

<표 3> 또래관계의 유형별 집단 괴롭힘과 공격성 비교: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괴롭힘		공격성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인기형(n=102)	-.04(0.99) <sup>b</sup>	-.28(0.04) <sup>b</sup>	-.31(0.25) <sup>a</sup>	-.20(0.74) <sup>a</sup>	-.16(0.85) <sup>a</sup>
거부형(n=94)	.07(1.05) <sup>b</sup>	.49(1.46) <sup>a</sup>	.35(1.27) <sup>b</sup>	.34(1.22) <sup>b</sup>	.31(1.20) <sup>b</sup>
무시형(n=106)	-.17(0.63) <sup>b</sup>	-.07(0.96) <sup>b</sup>	-.16(0.84) <sup>a</sup>	-.27(0.59) <sup>a</sup>	-.26(0.51) <sup>a</sup>
양면형(n=36)	1.42(1.67) <sup>a</sup>	-.27(0.02) <sup>b</sup>	1.97(1.43) <sup>c</sup>	1.90(1.25) <sup>c</sup>	1.48(1.68) <sup>c</sup>

\*평균과 표준편차 뒤에 표기된 첨자(a,b,c)가 다른 경우, 다른 첨자를 가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3. 집단 괴롭힘의 공격적 행동 유형에 따라 가해 학생의 또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먼저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은 어떤 유형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는 모든 유형의 공격성에 걸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남학생의 집단 괴롭힘 가해 정도는 특히 신체적 공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적 공격성보다는 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과 또래 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공격

적 행동은 또래 수용과는 무관하였으나, 또래 거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6, p < .001$ ). 성별에 따라 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은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할수록 또래들에게 거부되며( $r = .53, p < .001$ ),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r = -.25, p < .001$ )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은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할수록 또래들에게 거부되었으나( $r = .21, p < .01$ ), 또래 수용과는 관계가 없었다.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공격성과 또래 관계의 관계가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공격적 행동의 유형별로 또래 관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 또래 거부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또래 수용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공격성과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 지명정도, 또래거부 및 또래수용과의 상관관계

		공격성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Total	
집단 괴롭힘 가해자	남	.47***	.30***	.36***	-.06	.38***	.13	
	여	.50***	-.10	.74***	.31***	.79***	.48***	
지명정도	Total	.38***	-.04	.60***	.17**	.69***	.45***	
또래 거부	남	.48***	.11	.56***	.35***	.37***	-.07	.53***
	여	.22**	.13	.11	-.17*	.24**	.22**	.21***
또래 수용	남	-.21**	-.03	-.23**	-.05	-.25**	-.12	-.25***
	여	.10	.06	.12	.12	.04	-.10	.09

주) 왼쪽의 상관계수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오른쪽에 진하게 표기된 상관계수는 공격성의 두 유형이 통제된 후 나머지 한 유형의 공격성과 각 변인들과의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편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01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공격적 행동의 유형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공격적 행동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또래 거부와는 정적으로, 또래 수용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공격적인 남학생은 대체로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적 행동은 모두 또래 수용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만 또래 거부와 유의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관의 크기도 남학생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격적인 학생에 대한 또래들의 거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은 서로 높은 상호 상관이 있으므로, Salmivalli 등(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편 상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즉 또래 관계와의 관련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공격성의 영향은 통제 한 후, 나머지 한 유형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와

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성차가 발견되었다(<표 4> 참조).

먼저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다른 유형의 공격성(언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는 신체적 공격성은 또래거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하였다. 언어적 공격성의 경우,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도 또래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 거부가 높아지는 반면( $r=.35, p<.001$ ), 여학생의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거부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r=-.17, p<.05$ ) 나타났다.

한편 다른 유형의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와는 무관하였으나,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 p<.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의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의 또래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 유형 및 성별에 따라 또래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 1. 집단 괴롭힘과 공격적 행동에 대한 성별 차이

많은 선행연구들은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는 정도에 성별 차이가 있는 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 괴롭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격적 행동의 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바, 남학생은 신체적 및 언어적 위협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문을 퍼트리거나 또래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사회적·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였다(Boulton & Underwood, 1992; Sharp & Smith, 1991).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은 신체적 공격성을,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으로 지명된 정도에 성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유의한 성별 차이를 발견한 것은 대부분 공격성(특히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과 집단 괴롭힘을 동일시했기 때문인 것 같다. 공격성과 독립적으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정도를 조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및 공격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성별 차이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의 표출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때 공격성은 단일차원의 구인이라기보다는 여러 하위 유형으로 구성된 구인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집단 괴롭힘의 피해학생들의 또래 관계

본 연구 결과 집단 괴롭힘의 피해 학생들은 모두 또래들에게 심하게 거부되고 있었다. 또한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로 지명되는 정도는 개인의 또래 관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피해자로 지명된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되지만 할 뿐 또래수용은 낮은 학생들(거부형 또래 관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성이 낮은 아동, 또는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도현심, 2000; 이점숙·유안진, 1999; Hodges & Perry, 1999; Hodges et al., 1997)을 지지한다. 또한 거부형 또래관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괴롭힘 점수는 인기형이나 무시형 또래관계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보고한 Perry 등 (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래 거부와 집단 괴롭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또래들이 싫어하는 학생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odges 등 (1997)에 의하면,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학생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또래들에 의해 가치절하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또래들이 이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가해학생이 아닌 일반 아동들조차도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급우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는

Dodge(1986)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때, 또래 집단 내에서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래들이 거부하는 아동은 쉽게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론은 또래 거부와 집단 괴롭힘 사이의 높은 관련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즉 본 연구는 두 변인 사이의 상관을 밝힌 것일 뿐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은 아니다. 높은 또래 거부로 인해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기 때문에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아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또래들에게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집단 괴롭힘의 피해 학생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이러한 예상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피해 학생들은 공격적 행동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공격적 행동은 또래 거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집단 괴롭힘의 피해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심하게 거부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또래 거부는 이들의 공격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Farrington(1993)의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든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피해 학생들은 공격적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기보다는 가해 학생들의 공격성에 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3.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들의 또래 관계

본 연구의 결과, 집단 괴롭힘의 피해 학생들이 심한 또래 거부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들도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으로 지명된 정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반면, 가해 여학생은 또래들에게 거부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되고 있었다. 또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명된 집단은 일부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동시에 다른 또래들에게는 수용되고 있는, 즉 양면형 또래관계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많은 선행연구들(Coie et al., 1990; Rys & Bear, 1997; Salmivalli et al., 1996)에서 공격성과 또래 거부의 상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ys와 Bear(1997)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또래 거부의 상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격적 여학생은 오히려 인기가 있거나 양면형의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Coie et al., 1990). 본 연구 역시 집단 괴롭힘 가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여학생의 공격성과 또래 거부의 관계가 남학생에게서 보다 낮다는 결과는 Rys와 Bear(199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학생이 남학생과는 다른 형태의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학생이 친구를 수용 또는 거부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 행동의 부정적 영향이 남학생의 경우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여학생들은 또래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행동적인 요소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편상관 분석을 통해 다른 두 유

형의 공격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 나머지 한 유형의 공격성과 또래 거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성차를 보여주었다. 먼저 언어적 공격성의 경우,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도 또래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언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남학생은 또래로부터 많이 거부되는 반면, 여학생은 오히려 또래 거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유형의 공격성이 통제된 후에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와는 무관하였으나,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rick과 Grotpeter(1995) 및 Rys와 Bear(1997)와 일관된 것으로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를 설명하였으나,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거부를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Galen과 Underwood(1997)에 의하면, 남학생은 관계적 공격성보다는 신체적 공격성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여학생은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을 동등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Salmivalli 등(2000)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심각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의 또래 관계에서 여학생은 친밀성과 관계에 관심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지위(status)에 관심이 있다는 연구결과(Ladd, 1990; Maccoby, 1990)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집단 괴롭힘 문제는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높은 사회적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집단 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집단 괴롭힘의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또래 관계를 성별 및 공격적 행동유형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명만으로 집단 괴롭힘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집단 괴롭힘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도현심(1999)은 학생들 자신이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을 다소 약화된 정도로 지각하며, 그러한 정도가 남학생일 경우 더욱 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측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 괴롭힘과 또래 거부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혔을 뿐이며, 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후속연구에서 또래에게 거부되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괴롭힘의 피해학생이라는 이유로 쉽게 또래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종단적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 괴롭힘 가해 여학생이 가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또래들에게 수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아마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 공격성은 적게, 관계적 공격성은 많이 표출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적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의 강한 결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론에 불과할 뿐이며 여전히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 참 고 문 헌

- 도현심(1999).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9.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 307-322.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이접숙·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발달됨. **아동학회지**, 20(3), 107-121.
- Bosworth, K., Espelage, D., & Simon, T.(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41-362.
- Boulton, M.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ukowski, W., Gauze, C., Hoza, B., &Newcomb, A.(1993). Differences and consistency between same-sex and other-sex peer relationship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55-263.
- Coie, J. & Dodge, K.(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1.
- Coie, J. & Dodge, K.(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ie, J., Dodge, K., & Coppo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57-570.
- Coie, J., Dodge, K., & Kupersmidt, J.(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Asher & J.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 Grotpeter, J.(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Farrington, D.(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In Tonry, M. & Morris, N.(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1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len, B. K. & Underwood, M.(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Hodges, E., Malone, M., & Perry, D.(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dges, E. & Perry, D.(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Ladd, G.(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Lindman, R. & Sinclair, S.(1988). Social roles and aspirations of bullies and victims. Paper presented at the 8th world biennial ISRA conference, Swansea, Wales, July 2-6, 1988.
- Maccoby, E.(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Oxford, UK: Blackwell.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laslahti, L. & Keltikangas-Jarvinen, L.(1998). Types of aggressive behavior among aggressive preferred, aggressive non-preferred, non-aggressive preferred and non-aggressive non-preferred 14-year-old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821-828.
- Parker, J. & Asher, S.(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G., DeBaryshe, B.,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erry, D., Kusel, S., & Perry, L.(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Williard, J., & Perry, L.(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Price, J. & Dodge, K.(1989).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Relations to peer status and social context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455-471.
- Rys, G. & Bear, G.(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43(1), 87-106.
- Salmivalli, C., Kaukiainen, A., & Lagerspetz, K.(2000). Aggression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peers: Do gender and type of aggression matte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1, 17-24.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harp, S. & Smith, P.(1991). Bullying in UK schools: The DES Sheffield bullying project.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77, 47-55.
- Sutton, J., Smith, P., & Swettenham, J.(1999). Bullying and 'theory of mind':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8(1), 117-127.